

눈길 끄는 특·특·행·정

### “도서관에 없는 책, 서점서 빌려보세요”

여수시, 도서 바로대출 전년비 83% ↑

보고 싶은 책을 지역 서점에서 빌려보는 ‘여수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인기가 있다.

21일 여수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희망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서점과 연계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를 올해 여수시민 902명이 1914권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575명 1046권보다 두배 가까이(83%) 늘어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을 경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도서관에 오지 않고 바로 서점에서 원하는 책을 빌려 보고 반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별로 한 달에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은 이용 가능 서점을 지난해 8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려 시민 독서 편의와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했다.

시립도서관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문조사 한 결과, 94.3%가 “크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동네서점에



서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대출한 후 읽고 반납할 수 있어 도서관 부분개관에도 불편함이 없어 좋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월 협력서점 10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 구입비를 대폭 확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폐막거리 활용해 병해충 잡으세요”

광양시·광양주조공사, 해충 유인제 공급

광양시는 광양주조공사와 함께 유동기한이 지나 폐기처분 되는 막걸리를 병해충 유인제로 활용,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작물에 해를 가하는 나방류, 풍뎡이류, 파리류, 노린재류 등은 알이나 번데기 상태로 월동한 후 4월 이후 성충이 대산란을 시작하는데, 막걸리 트랩으로 성충을 제거하면 알 낳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백개의 알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해충별 성충 출현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심기(정식) 10~15일 전 막걸리 트랩을 포장에 설치하면 성충을 신속하게 제거, 해충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김동훈 광양시 식량작물팀장은 “막걸리 트랩은 해충 유인기 역할에 산란기에 설치하면 병해충 방제 효과가 매우 크다”며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막걸리 트랩 제조·설치·공급 문의는 광양시 기술보급과로 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막걸리 트랩 제작 방법은 2ℓ 페트병 4면에 가로·세로 3cm 길이로 U자 모양으로 톱을 들어올리고 폐막걸리를 10cm 높이로 채운 뒤 설탕 1-2스푼과 주정을 소주잔으로 1-2잔 첨가하면 된다. 대량 제조 시에는 막걸리 20ℓ에 설탕 600-900g, 주정 2-4ℓ를 혼합해

### 광양시 기업인상 선정...최고경영인에 라병열 신성플랜트 대표

‘최고근로인상’ 유중근 포스코 과장 ‘산업평화상’ 김유영 프롬스 勞대표 수상 기업에 행·재정적 우선 지원

라병열 (신성플랜트 대표)가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고근로인상’에는 유중근 (포스코 과장), ‘산업평화상’에는 김유영 (프롬스 근로자 대표)가 선정됐다.

광양시는 최근 기업사랑 공적심의회를 열어 지역 사회 발전과 친기업문화 확산 및 노사화합에 기여한 경제인들을 ‘올해의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경영인상’에 뽑힌 신성플랜트 라병열 대표는 1993년 설립된 중화학공업의 핵심기술인 리액터와 정제기 및 열교환기를 설계·제작·공급하는 업체 경영인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철학과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경영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



라병열 대표 유중근 과장 김유영 근로자 대표

름스의 근로자 대표로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근로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신뢰·배려·소통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조성한 공로다.

광양시 기업사랑 공적심의회 위원장인 김명원 부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 상호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기업인상은 지난 2012년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23명의 기업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기업에게는 3년간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추가 1% 우대, 행·재정적 지원사업 우선 지원, 광양시 주요 행사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기자 노트

### 최악 섬진강 수해, 연내 배상 물건너 갔나

구례군이 생긴 이래 올 여름 구례 지역에 고위인사가 가장 많이 다녀갔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도지사,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 군 장성까지... 이들의 방문은 사상 유례 없었던 대홍수 때문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복구와 보상 및 배상을 약속했다. 구례군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나면서 역전됐다. 구례군민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는 목메이게 외치고 있다. “수해가 인재였으니 피해를 배상하라”고. 심지어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물 관리를 잘 못하였다”는 이유다. 검찰이 수해 원인을 밝혀달라는 마음에서다.

지난 8월8일, 구례는 수중도시로 변했다. 섬진강의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범람·붕괴되면서 구례읍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아파트만이 빼꼼히 드러날뿐 집도 상가도 논도 모두 잠겼다. 기르던 소·돼지도 강물에 떠 내려가고 짐승들의 사체는 작은 산을 이뤘다. 살아남은 소들은 산속 암자로 피신하고, 자봉으로 올라가 살려달라고 소리내어 울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탈출하고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등 피난터를 방불케 했다.

처참하게 변해버린 구례에 군민 인구만큼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 각계각층의 격려와 위문도 이어졌다. 정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피해복구에 나섰다. 군 작전을 방불케 한 민·관·군의 협력으로 구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수재민들도 빠르게 진행된 피해 복구를 보며



이진택 제2사회부 부국장

있다. 군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다. 1600억원에 달하는 수해를 입었지만, 배상은 시작도 않고 있다.

이는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피해보상 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재해보험도 마찬가지다. 죽은 소 보상은 송아지값도 안 되고, 집이 무너져도 보상은 서울 아파트 화장실값도 안 된다고 탄식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지어진 이재민 주택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다시는 이같은 수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다시 반복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국은 이번 수해를 거울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구례군민은 올해 내 피해 배상이 이뤄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미 물건너 간 것 같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지만, 구례군민들의 가슴은 기대와 희망보다는 절망과 분노가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새해에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 /lit@kwangju.co.kr

### 순천만국가정원 해설사들, ‘이야기가 있는 정원길’ 발간

순천만국가정원 해설사들이 ‘이야기가 있는 정원길’을 발간했다.

이는 순천만정원 해설사들이 펴낸 두번째 책으로, 그동안 해설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모았다. 해설사 각자의 시각과 느낌으로 관람객들을 만난 체험담과 소감 등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해설사들은 앞서 지난 2017년 ‘이야기가 있는 정원길’ 첫매권을 펴냈다.

박현숙 순천만국가정원 해설사회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순천만국가정원을 직접 찾지 못하더라도 이 책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들을 통해 순천만을 사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